

시대가 요구할 땐 대중과 울고 웃는 보살 많아져야

전등사 전등선림 선원장 동명 스님

서울 성북동 북한산 자락에는 '깨달음의 숲'이 있다. 바로 전등사 전등선림(傳燈禪林)이다. 전등사의 선원이들이 '선림(禪林)'인 이유는 나무가 홀로 성장할 수 없듯이, 수행자도 도반들과 함께 정진해야 큰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근현대 호남의 대표 선사였던 해안(海眼, 1901~1974) 스님이 지은 이름이다.

울 하안거에도 16명의 재가자가 방부를 들인 전등선림은 해안 스님이 "재가불자들이 스님과 함께 수행해야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다"며 1967년 만든 '불교전등회'의 등불을 이어온 대표적인 재가 참선도량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가 실전 수행'이라며 도심에 전등사를 개원한 해안 스님은 "화두일념에 들면 누구나 7일만에 깨달을 수 있다"고 수행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경봉 스님과 함께 '동(東) 경봉, 서(西) 해안'으로 불리며 선종을 펼쳤던 해안 스님의 유지를 이은 선원장 동명 스님은 스승이 입적한 지 35년이 지난 오늘까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禪)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다. 전등선림의 안거 수행자들은 오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8~15시간 참선한다. 동명 스님은 대중과 함께 선방에서 좌선하거나 주미 경책을 내리는 한편, 수시로 일대일 점검을 하며 수행자를 지도하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된 선원장실에 들어가 삼배를 하려니, 일 배만 하라고 한다.

"스님, 성북동 재개발 문제로 사찰이 이전해야 필지도 모르다면서요?"

"재개발 허가가 났지만, 주민들의 찬반이 팽팽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개발 여부가 결정되면, 절 바로 옆에 홀로 된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정진하며 살 수 있는 쉼터를 만들까 해요."

사진기자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자, 스님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겸연쩍게 말한다.

"인터뷰라는 게 꼭 연기하는 거 같네요."

"스님, 세상살이가 연극 아닌 게 있나요?"

"그렇지, 하하하!"

전등선림의 수행현장을 여러번 방문한 터라 스님의 출가인연과 공부담에 대해 여쭙었다.

1950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스님은 어머님이 자식을 키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완주 일출암에서 2년 동안 지내기로 하고 절에서 생활했다. 열네살 때부터 1년반 동안 출가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신심행이라는 노보살님이 "전라북도인 크스님 한 분이 전주에 오신다"며 만나뵙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도 도인스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던 일을 놓고 도망쳐 나왔다. 순진한 마음에 절에서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가시땀땀을 헤치고 산을 넘어 그렇게 도망가와 해안 크스님을 뵈려갔더니, 이미 날짜를 하루 넘겼다. 다행히 크스님계선 "충남 보덕사로 찾아오라"는 전갈과 200원을 넣은 돈봉

투를 남기고 떠나셨다.

다음 날, 보덕사를 올라가니 비구니스님들이 "전주에서 꼬마가 왔다"며,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깎아 주었다. 웃을 갈아입고 당시 보덕사 선원 조실로 수좌들을 지도하던 해안 크스님을 뵈었는데, 그러도 엄숙해 보일 수가 없었다. 절을 하고 앉은 동명 스님에게 크스님께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꼴도 베고 나무도 하고 일도 했다"고 대답했더니 반가워하면서 열방에서 자라고 했다.

"그날 밤,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많이 사랑 받았으며, 내 생애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모했던 스승님을 뵈었지요."

동명 스님은 보덕사에서 무더운 여름 날, 크스님의 지시에 따라 일념으로 하루에 일만배씩 열을 동안

해안 스님 10일간 십만배 시켜... '생활이 곧 법문' 배운 행자생활

"고행이 바른 수행법은 아니야"... 심성 곧고 반듯한 게 정도

십만배를 했다. 그리고 나니, 크스님께서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이때부터 동명 스님은 내소사 지장암(現 서래선원)으로 가서 해안사 강원으로 공부하러 갈 때까지 서너 해 생활 그대로가 법문이었던 행자시절을 보냈다. 크스님은 어린 상좌에게 목탁 치는 법이며 염불하는 것을 가르쳤고, <금강경>을 외우다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쭙면 자다가도 일어나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 때 스승은 무엇이든 물으면 가르쳐 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크스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편했고, 그 때부터 스님을 모신 이후 돌아갈 때까지 한번도 스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지요. 스승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며, 그것이 사제지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해안 스님은 동명 스님에게 '불교가 무엇이다, 수행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공부 가르칠 땐 무서울 정도로 엄숙하게, 사적으로 스님과 신도를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하게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깨닫게 했다.

"지장암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 때, 스님은 종종 내 소사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앉아 '산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산을 보거들랑 산의 부동(不動)함을 배워라' 하였고, 흐르는 물 앞에선 '만물의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모습'을 보도록 가르쳐주셨어요. 일상생활의 모든 게 법임을 배웠던 것이지요."

일 년에 한 번 두부를 먹어볼까 말까 할 만큼 가난했던 지장암 시절엔 오전에 참선과 경전 공부까 끝

나면, 오후 내내 농사짓는 울력이 많았다. 먼 곳에서 도인스님을 찾아 공부하러 왔던 수좌스님들도 못견디고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하지만 동명 스님은 스님 곁에 있는 것으로 감사해 그런 마음을 한번도 먹지 않고 한시도 스님을 떠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도 멀리서 들려오는 스님의 목소리, 기침소리만 듣고도 원하는 걸 감지하고 그대로 대령하곤 했다. 그러던 크스님이 "내가 물을 먹고 싶었는데 네가 알고 따왔구나"하고 기뻐하시고, 가을이면 산에 올라가 다래며 머루, 으름 등을 따다 드리면 어디서 어떻게 따왔는지를 물으면서 맛있게 드시곤 했다.

해안 스님은 16세의 어린 동명 스님이 법기(法器)임을 알고 행자생활과 함께 참선을 시켰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데 다가오셔서, 주장자로 우물을 세 번 두드려 '이게 무엇이야?'고 물으시길래,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 없어진다면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을텐데...' 하는 고민 끝에 스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결행했다. 아궁이 문으로 사용하는 두툼한 나무판 위에 성기를 올려놓고 시퍼런 삭두머리 깎는 칼로 힘껏 내리친 것이다. 순간 스님의 몸에서 붉은 피가 머리까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잠시 후 이를 발견한 열일곱 살 더 많은 사형 해산 스님이 깜짝 놀라 손수레에 스님을 싣고 병원으로 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

"공부가 안 될 때는 생식이나 단식, 묵언 정진 등 안 해본 게 없었죠. 몸통 아리물 조복받아야 견성한다는 고정 관념이 강했던 겁니다. 하지만 고행은 인내력만 기를 뿐, 오히려



선지식을 찾아서

니, 그 뒤로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으라'는 화두를 내리셨습다."

그후 동명 스님은 해안 스님과 늘 화두에 대해 문답을 주고 받았는데, 해안 스님은 법회 때 사람들 앞에서 "동명이 공부를 잘 했다"고 칭찬했다. 막상 제자 앞에선 칭찬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부도 잘 하고 착하고 좋은 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 어린 상좌를 기쁘게 했다.

"스님은 남나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선지식입니다. 선지가 투철한 대선사이셨고 시문(詩文)에 능하셨던 스님께선 내게 시를 읊어 주시며 받아 적게 하였고, 스님들이나 신도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스님은 내게 글을 짓는 법에서부터 말하는 법까지 수행자가 지녀야 할 법도 등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내 평생의 살림살이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해안 스님의 공부에 대한 지도방법은 독특했다. 웅맹정진을 할 때 한 사람씩 불러들여 문답을 하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혼을 내어 분심과 의심을 일으키게 해서 잡생각 할 틈을 두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제자가 다른 틈을 두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참선이고 간경이며 공부였다.

스승의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가르침을 동명 스님은 스편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였지만, 세상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동진출가했던 스님은 수행과정에서 큰 사고(?)를 치고 만다.

나이 열여덟이 되자, 스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지 속에서 불속불속 치우는 육망덩어리를 확인하고 심한 자괴감과 혐오감을 느꼈다. '성욕(性慾)

동명 스님은 ...

1950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4년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내소사에서 사미계를,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5년 합천 해안사 강원을 졸업하고 해안사, 송광사, 통도사, 백양사 등 제방선원에서 '은산철벽(銀

山鐵壁)'을 화두로 참구했다. 1987년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부안 내소사 주지와 조계종 총회의원,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등사 주지 겸 선원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해안 선사의 유지를 받들어 시민선방을 개설, 사부대중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해성불원(海城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려고 노력하는만지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자빌딩 1505호)

감사의안내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각 사암 스님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해성불원자비회가 발족 한지도 어언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 사암스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와 놓여준 총각 들을 대과 없이 짝을 이루어 살때, 근원을이루어 주었고 현재는 더욱 발전하여 여러 국가 여성들 중국, 베트남,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다수 국가의 아가씨와 폭 넓게 발전하게 됨은 오로지 스님들께서 다 같이 염려하여 주시는 은덕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총각 들의 삶의 보람과 굳건한 한국 인구 발전에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원 하옵니다.